

〈습관적 불순종의 대가〉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6/10(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15:17-23

1. 사울이 살진 짐승을 살려 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마치 사울과 같이, 그 이유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불순종’ 의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이라는 그럴 듯한 명목으로, 살진 짐승을 숨겨 둡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 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분적 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럴 듯한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자기합리화 했던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순종’ 에 대해 도전을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저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로 인해 미뤄 두었던, 나의 ‘순종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까?

질문 내용과 같이,

이런 저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며, 자기합리화 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며,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봅시다.

순종은,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순종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가 먼저 나눔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